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의 현황

최경애* · 손지영**

최근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해 강의실 교육을 보완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던 세부적 논의와 의사소통, 자료 교환 등을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글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03년도 1, 2학기에 온라인 활용 강좌에 대한 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서 1학기와 2학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 그 양상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본 글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의 요구

2003년 2학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서울대학교 재학생 403명에게 원하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온라인 강좌의 유형, 온라인 강좌의 필요성, 개선해야 할 서비스 등이었다. 먼저 ‘원하는 온라인 강좌의 유형’ 항목에서 특히 요구가 높았던 강좌는 어학 분야, 계절 수업, 입학 전 교양 수업이었다. 전체적으로 학과 정규 수업보다는 교육과정 외의 영역에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 입학 전 교육의 경우에도 79.4%의 학생들이 사이버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계절 수업의 경우에는 93.9%의 학생들이 수강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온라인 강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업 내용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더 이해하기 쉽고(16.6%), 반복 학습과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것(14.6%)이라는 답변으로 온라인 강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 학습의 편의성 측면에서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고(20.1%), 편리한 복습(19.1%)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강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매체지원부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매체지원부 조교

한 질문에서는 수강 신청 시의 강의계획서 연동(43.2%), 학과별 교육과정 소개와 강의 개요 안내(32.0%), 수업 사이트 자동 생성 및 연결(17.6%)의 순서로 답했고, 75.2%의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온라인 서비스’로는 수업 관련 공지사항 및 토론 게시판(32.0%), 수업 관련 자료의 배포(37.5%), 수업별 웹 사이트 개발(24.6%)의 순서였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양질의 온라인 수업 컨텐츠 개발(43.0%), 전자도서관 구축 및 개선(18.9%), 네트워크 시설 및 장비 확장 보완(16.6%), 학내 온라인 시스템 간의 통합 문제(9.9%), 온라인 교육 담당 전문 인력 육성 배치(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78.9%가 향후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의사가 있었고, 응답자의 74.7%가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좌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의 확대에 대해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사이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재정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학사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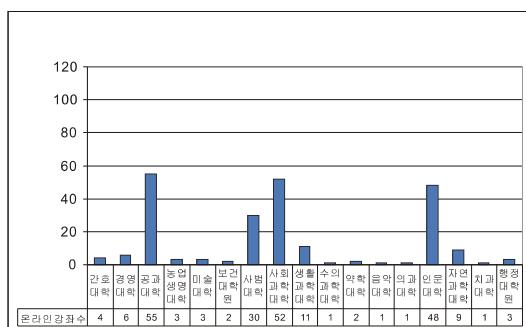
2. 온라인 활용 강좌의 현황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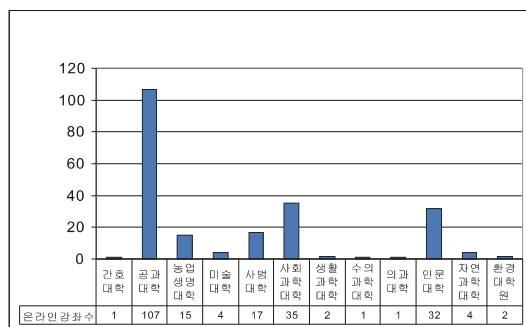
실태 조사 결과, 2003년 1학기에는 전체 4,264개의 강좌 중 232강좌, 2학기에는 전체 4,574개의 강좌 중 221강좌가 온라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1학기에 온라인 활용 강좌 수는 공과대학이 55개, 사회과학대학이 52개, 인문대학이 48개로 전체 온라인 활용 강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이 30개였으며, 이 외의 단과대학들은 10개 미만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3년 2학기에는 공과대학이 107개로 전체 온라인 활용 강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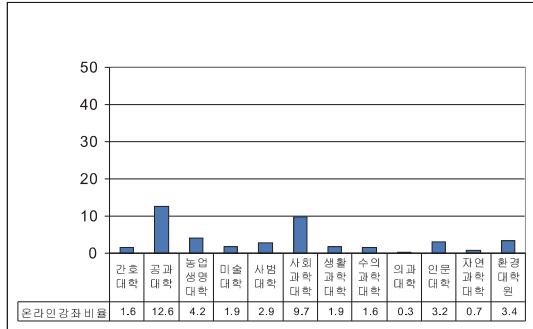
〈그림 1〉 2003년 1학기 온라인 활용 강좌 수



〈그림 2〉 2003년 2학기 온라인 활용 강좌 수



〈그림 3〉 2003년 2학기 온라인 활용 강좌의 비율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35개, 인문대학이 32개, 사범대학이 17개, 농업생명과학대학이 15개였으며, 이 외의 단과대학들은 모두 5개 미만이었다.

2003년 2학기에 전체 개설 강좌 중 온라인 활용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과대학이 12.6%로 다른 단과대학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9.7%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5%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을 통해 활용 강좌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다른 단과대학들에 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년 2학기에 전체 개설 강좌 수가 4,574개 가운데 온라인을 활용한 강좌는 그에 4.8%에 해당하는 221강좌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강의 자료 제시와 게시판 이용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에 토론실, 자료실,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면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는 아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에서 쓰이는 자료 유형은 대부분 텍스트 파일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텍스트 파일 위주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오디오, 비디오, 시뮬레이션 자료 유형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용도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강좌들은 온라인을 과제 제출에 활용하고 있었고, 기타 토론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미나나 시험에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언

위에서 확인한 대로 2003년도 2학기에 전체 개설 강좌의 4.8%만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활용 강좌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 대학의 경우, 2003년 2학기에 연세대학교는 543개, 2004년 2학기에 이화여자대학교가 760개의 온라인 활용 강좌가 개설된 것과 비교하면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활용 강좌 수는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학기인 2003년도 2학기를 비교하면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학교(221강좌)보다 2배 정도 많은 온라인 활용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활용 강좌의 개설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낮은 활용도에 반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조사 결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강의를 주도하는 교수들의 의식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서울대학교의 교육 풍토와 교수들의 의식이 온라인 교육에 아직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의 문제이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사이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규 학위 과정에서 온라인 강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는 멀티미디어교육원을 설립하여 웹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학부 중심의 인터넷 강의실을 확대하여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강좌 및 공개강좌로 온라인 강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 2학기에는 10개의 국제 사이버대학 강의를 100% 온라인 강좌로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 서울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전담하는 체제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책 및 재정 지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대학

교의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의를 운영하는 교수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교육 방법을 수용해 그것을 서울대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체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 체제를 확립해,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전문 인력과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 활용 강좌가 일부 단과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좌의 학문적 특성을 기인하기도 하지만, 특정 단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온라인 활용 강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단과대학별 학문적 특성을 살린 모델 강좌를 개발하여, 다수의 단과대학들에서 온라인 활용 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 및 담당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모델 강좌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 지원하여 온라인을 활용하는 강좌가 점점 증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대학교 온라인 활용 강좌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시 온라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다. 학생들 역시 질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강사들에게 여러 자료 유형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교육이나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동기 유발, 피드백, 상호작용 촉진 등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수업 개발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가 구축된 질적으로 우수한 온라인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교수와 강사의 준비와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만큼 대학의 지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정착될 수 없다. 따라서 강좌 개발비용, 강좌 관리자, 전문 인력, 각종 기기 관리 전담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온라인 교육에 투자하는 강사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정 및 보상 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